

[탄원서]

성명: 故 김태관(1967.11.19.출생, 2019.8.6.사망)

소속: 울릉도 저동초등학교

상기 고인은 1990년 7월 1일 울릉도 모 초등학교 시설관리직으로 임용되어 공직을 천직으로 알고 불철주야 몸을 사리지 않고 열정을 다해 묵묵히 일해 오다 2019.8.6. 제8호 태풍 “프란시스코” 상륙으로 학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학교시설물 취약지구 특별 안전점검 중 학교에서 근무 중 심정지로 쓰러져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리 하였습니다.

고인은 29년을 공직생활 동안 투철한 사명감과 함께 매사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학교시설관리에 대한 남다른 업무 추진으로 재해 및 취약시설 사전점검에 따른 안전조치 강화를 목적으로 학교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.

사망 당시 제8호 태풍 “프란시스코” 상륙으로 학교 및 학생에 많은 피해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학교 주변 시설물 취약 시설 점검과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시설물을 평소보다 더 많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당일 태풍이 몰고 온 덥고 습한 기온으로 야외 외부작업을 하던 고인에게 높은 기온이 심장에 무리를 줬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심폐소생술 과 심장충격기 등으로 멈춘 심장을 소생시키는데는 성공했지만 제8호 태풍 “프란시스코” 북상으로 응급헬기 운항이 불가능하여 여객선을 이용하여 후송 중 숨졌습니다. 울릉도라는 도서벽지가 아니었다면 고인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.

시설관리직 공무원으로서 한 점 부끄럼 없이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살다간 고인의 숭고한 희생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 될 수 없습니다. 하지만 고인에게에는 아직도 장애를 가진 자녀와 나이 드신 연로한 부모님, 한평생을 같이 살아온 배우자가 있습니다. 고인의 숭고한 희생을 조금이나마 보상 받고 남은 유족이 아버지와 남편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아 갈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에서 공무상 순직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오니 살피주시기 바랍니다.

2019.8.

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

탄원 연명서

경상북도 울릉도 저동초등학교 학교 근무 중 2019.8.6. 심장지로 유명을 달리하신 故 김태관 선생님의 공무상 순직 인정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받고자 합니다.

많은 조합원이 서명하시어 8월 23일까지 경북교육노조 (팩스 054-805-3989)보내 주시길 바랍니다.

-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이면승

연번	소 속	성 명	주 소	서 명
1				
2				
3				
4				
5				
6				
7				
8				
9				
10				
11				
12				
13				
14				
15				
16				
17				
18				
19				
20				